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1월 1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10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1. 10(수)	담당부서	미래자동차산업과
담당과장	서길원 과장(044-203-4340)	담 당 자	김상효 사무관(044-203-4342)

제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6) 연계, 세계적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논의

- 김효은 기후변화대사, 제4차 무공해차 전환 위원회(ZEVTC) 참석 예정
- ①세계적 차원의 무공해차 전환, ②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논의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문승욱)는 **김효은 기후변화대사**가 '21.11.10(수),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**제4차 무공해차 전환 위원회(ZEVTC, Zero Emission Vehicle Transition Council)**회의에 참석하여,

* 당초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 예정이었으나, 현안 대응 등을 위해 COP26 교체 수석대표인 기후변화대사가 참석

○ **①세계적 차원의 무공해차 전환, ②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** 등 **수송 분야 탄소중립 실현**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힘

< ZEVTC 개요 >

- **(개요)** COP26 의장국인 영국이 세계적 차원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20.11월 창설한 장관급 협의체
- **(구성)** 세계 주요 자동차 국가 15개국(세계 자동차 판매의 75% 차지)
  * 영국, 네델란드, 노르웨이, 프랑스, 스페인, 이태리, 독일, 스웨덴, 덴마크, 인도, 한국, 일본, 캐나다, 멕시코, 미국, 유럽연합, 캘리포니아주 (중국은 3차회의부터 옵저버로 참여)
- **(그간 추진경위)**

구 분	주요 내용
제1차 회의 (20.11월)	· ZEVTC 창설
제2차 회의 (21.4월)	·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· 전기차, 수소차, e-fuel, 하이브리드 등 기술적 대안들에 대해 논의
제3차 회의 (21.9월)	·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 수단 논의 · ZEVTC 22년 활동계획 논의

□ 「**글로벌 차원의 무공해차 전환**」**세션**에서 기후대사는 **우리나라의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천 계획**을 설명하고, **개도국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 방안**에 대해 언급할 계획임

○ **(국내)**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(NDC)를 기존 26.3%에서 40% 감축으로 상향한 바, **수송 부문**도 **2030년까지 18년 대비 37.8% 이산화탄소 감축**이 필요한 바,

- 이를 위해 **온실가스·연비 규제, 저공해차 보급목표제** 등을 강화하고, **사업용 차량 우선전환**, 보조금·세제 혜택 부여, **충전 기반 확충** 등을 통해 **전기차·수소차 보급을 가속화**해 나갈 계획을 설명

  * '30년까지 전기・수소차 450만대, 하이브리드 400만대 보급

  ** '25년까지 전기충전기 50만기, 수소충전소 450기 구축

○ **(개도국 지원) 개도국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**을 위해 국내 업계의 **개도국 현지 전기차 생산 및 배터리 공장 투자 사례**를 소개하고, 정부차원에서도 **내년부터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(ODA)사업에 착수**하며 앞으로 **점차 대상국가를 확대**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,

  * 인니 온실가스 감축용 태양광 충전 전기이동수단(E-Vehicle) 시스템 구축사업(22~26, 190억원 예정)

- 개도국에 대한 보다 효율적 지원을 위해 세계은행(WB), 아시아개발은행(ADB) 등 **국제개발은행에서 협력 프레임을 만들고 관심 국가가 참여하는 방안**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

□ 「**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**」**세션**에서 기후대사는 **한국은 세계적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**(39.8%, 20년) **국가**로서 지속가능한 배터리 생태계 구축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바

○ 한국은 ①탄소저감 공정 및 배터리 성능 개선 기술개발, ②사용후 배터리 성능·안전 평가 시스템 마련, ③배터리 수거, 재활용 기반 구축 등 **배터리 전주기 차원의 탄소저감을 위해 노력**하고 있으며,

○ 앞으로 **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**하고, 이러한 **한국의 정책적 노력과 사례를 적극 공유**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

□ 한편, 같은 날 **의장국 영국**은 **COP26을 계기**로 **세계적 차원의 무공해차 전환 촉진 계기 마련**을 위해 「**100% 무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가속화에 대한 COP26 공동 선언**」 **채택을 추진**할 계획인 바,

○ 동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"**2035년까지 주요 시장(leading market-미국, 중국, 유럽연합, 일본), 2040년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신차 판매는 100% 무공해 자동차가 되도록 노력(work towards)한다**" 이며, 국가 이외에도 지방정부, 기업, 금융기관 등이 참여가 가능함

* 참여확정 국가 : 네델란드, 룩셈부르크, 아일랜드, 핀란드, 리투아니아, 폴란드, 스웨덴, 노르웨이, 캐나다, 아르헨티나, 인도 등

** 참여확정 기업 : 볼보, 다임러, BYD, 재규어 & 랜드로버 등

○ 우리나라는 무공해차 전환에 대한 큰 맥락에서는 동의 하지만, **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**하다는 입장에서 **금번 공동선언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**이며

- **독일,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**도 우리와 유사한 이유에서 **서명하지 않을 예정**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

○ 반면, **서울, 울산, 세종, 제주, 강원, 충남 6개 지자체**는 지자체장의 수송분야 탄소중립 의지 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동 **공동 선언에 참여할 계획**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김상효 사무관(☎ 044-203-43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